

제목 : 조경수협회 회원의 사명

우량조경수를 생산



장석모 | 순천대학교 명예교수
 전 순천대학교 산림자원학과교수
 그린순천협의회 공동의장

우리나라도 국민소득 증가로 국민건강과 레포츠 산업의 발전을 도모한지도 오래되었다.

세계 각지의 사람들은 자연경관을 찾아 또는 인공경관을 찾아 여행을 떠난다. 유럽 국가를 위시하여 관광산업을 국책사업으로 전환하고 있는 나라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이다. 세계도처에 많은 사람들은 자연경관이 너무 아름답다워 그 비경을 보는 것을 일생의 꿈으로 알고 그 경관을 보기위해 계획하여 시도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동안 열악한 환경속에서 조경수 협회를 이끌어 오신 역대 회장 지부장, 임원회원 모두에게 열정과 정성으로 40여년의 역사를 있게 하고 17개 지부로 발전하여 전국회원만 하더라도 1200명 정도가 되었다하니 그 노고를 치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산야를 말없이 아름답게 꾸며 오신 조경수 협회 회원이 아닙니까?

아름답게 풀린 고속도로 주변의 조경수, 도시공간의 조경수군락, 골프장 경관조성, 공원, 휴양림 모두가 우리나라 군, 관만의 합작품이지만 조경수협회 회원들의 손때가 묻은 작품이 아닙니까?

2009년 개성공단 조성에 가로수 식재의 위업도 미래를 위한 우리들의 투자라 생각할 때 감회가 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연경관은 한정되어 있으나 조경수종마다 특성을 고려하여 배식철학을 연구하여 가면서 국토미화에 동참하는 조경수협회 회원의 노력의 결실로 세계에서 제일가는 인공경관조성 국가가 되길 소망합니다.

저는 그동안 대학에서 조림학, 수목학(조경수목학), 식물분류학을 강의해오면서 진즉 조경수협회에 참여치 못했던 것을 아쉽게 생각하고 이제라도 관련학과(임업, 조경분야)교수님이 모두 동참하여 산학협동 교육의 일환으로 현장감 있는 교육이 이뤄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세계사의 조림역사를 보면 독일로 1368년 뉴렌베르그 화산적지에 소나무, 가문비나무, 잣나무를 파종조림을 실시한 것이 최초이며 지금도 국제공항인 프랑크푸르트 공항 주변이 숲속에 쌓여 세계인의 주목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는 전 국토의 68%가 산림인데도 가로수, 조경수, 공원수를 많이 식재하고 있음은 환경개선사업의 미래를 밝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에서도 녹색성장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수목을 식재해야 된다는 결연한 의지가 있을 때 엄청난 산업 부지확장에 소요될 우량 조경수를 생산하여 국토 경관 조성에 동참하는 회원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 산재해 있는 우량조경수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들은 지금까지 수목을 식재할 때 원산지를 묻고, 지금도 관광지 수목표찰을 보면 원산지 표기를 한 것을 보곤 합니다. 개방된 국제사회인데 조경수도 예외일 순 없습니다.

관실수목인 러시아의 대표적 조경수인 마가목이 뉴질랜드 가로수공원수로 식재되어 많은 호평을 받고 있으며 캐나다 원산지인 핀오크(대왕참나무)도 대구지역을 위시하여 서울근교에서 가을단풍의 경관미를 제공하고 있어 대전엑스포 가로수로 지정된바 있습니다.

또한 진달래과이며 고산지역에서 주로 생육하고 있는 만병초(사꾸나계, 石南花)도 일본 후지산에 유명하지만 북유럽 전역에서 아주 인기가 있는 종인데 불행하게도 우리나라에서는 지리산, 울릉도 자생식물이지만 이것을 보호하지 못해 멸종되어가고 있다는 것이 한스러울 따름입니다.

전국 각처의 산야에 식재되어 재배되고 있는 조경수를 접할 기회가 많아 보면서 느끼는 아쉬움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인력이 부족하고 예산이 뒷받침이 되지 못한 점 많겠으나 조경수를 심어서 재배하면 된다는 인식부터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밀식이 되어 쓸모없는 나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조경수는 품종고유의 수형이 유지되고 있어야하므로 유묘 양묘시 잔존본수를 고려하여 양묘하는 것처럼 묘간 식재 거리를 넓혀 우량묘 생산을 할 때 조경수 회원의 위상 뿐 아니라 조경수도 제 값을 받을 수 있어 소득도 높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한 전국 산야에 식재되어 있는 정원수가 밀식되지 않고 수종고유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으면 그 자체가 미관이요 경관조성이며 행적적인 받침이 이루어질 때 지대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수종의 생태적 특성을 살려 식재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온난화현상으로 남부지역에서 생육되는 수종들이 검증 없이 중부이북지방에 식재되어 피해를 보게 되는 경우도 있음을 지적해두고 싶습니다.

이번 겨울한파로 서울지역에 식재된 이카도(황자색철쭉)가 동사한 것을 목격한 바 있습니다. 정보교환을 통하여 정성들여 재배한 조경수들이 피해가 없게 되길 간절히 바라는 심정입니다.

우리나라 식생대를 난대, 온대, 한대로 대별하고 있는데 생육온도에 따라 조경수들이 생육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조경수의 관상부위가 관엽·관화·관실 임을 감안하여 우량조경수를 생산하여 많은 소득을 올리고 또한 아름다운 국토경관을 조성하는데 동참하여 주시길 바라며 또한 어렵지만 주어진 환경과 여건 속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조경수협회 회원이 되시길 바랍니다. 🌿